

2025년 가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

전체 주제:  
바울의 서신들 안에 있는 진리의 중점들 —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메시지 14

한 새사람을 위해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허락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고, 기도에 꾸준히 힘쓸

성경: 골 3:15-17, 4:2-4

I. “그리스도의 화평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한 몸 안에 부름을 받은 것도 이 화평을 위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 골 3:12-15, 2:14-18.

- A.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에서 화평을 내리도록 하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다면, 서로 짊어지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것같이, 여러분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 골 3:13.
  - 1. 용서해 주시는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 안에서 사신다. 용서해 주는 것은 그분의 생명의 미덕 중 하나이다. 우리가 그분을 생명과 인격으로 취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용서는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의 미덕 중 하나가 될 것이다.
  - 2. 우리는 또한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몸의 생활에서 우리의 마음은 지체들에 대해서는 항상 화평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주님께는 감사하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 B. ‘판정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심판을 보다’, ‘다스리다’, ‘모든 일의 통치자와 결정자로서 보좌에 앉다’로 번역할 수도 있다.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할 때, 누구에 대해서든 우리의 불만이 해결된다 — 골 3:15, 13.
- C. 종종 우리는 우리 안에 세 편, 곧 긍정적인 편과 부정적인 편과 중립적인 편이 있다는 것을 의식한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다툼을 끝내는 내적 중재가 필요하다.
  - 1. 언제든지 우리의 존재 안에서 서로 다른 편들이 다투거나 싸우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스리는 화평에 지위를 내어 주고, 새사람의 하나(oneness)라는 이 화평이 우리 안에서 통치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허락해야 한다.
  - 2. 우리는 우리의 의견, 우리의 관념을 제쳐 두고, 내주하시는 심판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 D. 우리가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허락한다면, 이 화평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다툼을 해결할 것이고, 우리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수평적으로는 성도들과 화평을 가질 것이다.
  - 1. 그리스도의 화평이 판정을 내리는 것을 통해, 우리의 문제들은 해결되고 성도들 간의 마찰은 사라진다. 그럴 때 교회생활은 달콤한 속에 보존되고 새사람은 실지적으로 유지된다.
  - 2. 그리스도의 화평이 판정을 내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해 그분의 다스리심을 행사하시고, 마지막 말씀을 하시며, 회종적인 결정을 내리시기 위해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것이다 — 비교사 9:6-7.
  - 3. 우리가 보좌에 앉은 그리스도의 화평의 다스림 아래 머문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마음 상하게 하거나 손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보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의해 그분의 화평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할 것이다 — 요일 5:16 상.
  - 4. 이러한 화평이 모든 믿는 이들을 함께 묶어 주고 연결하는 띠가 되어야 한다 — 앱 4:3.
- E.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화평이 판정을 내리게 할 뿐 아니라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 몸의 생활 안에서 우리 마음은 항상 지체들을 향하여 화평의 상태 안에 있어야 하고 주님의 돌보심과 날마다 구원하심에 감사를 드려야 한다 — 골 3:15 하, 시 107:1-2, 8, 15, 21, 31-32.

## II.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되” — 골 3:16-17.

- A.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으뜸과 중심과 전부이신(골 1:16-17)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한 것이다(골 1:25-27).
- B.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충분한 입지를 가져 우리의 온 존재에 침투하고 온 존재를 적신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우리 안에 거하며, 우리 안에서 승리하고, 우리의 관념과 의견과 철학을 대치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시 119:130, 비교 계 21:23, 22:5.
- C.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첫째 위치를 차지하도록 허락해야 한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유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들을 체험할 수 있다 — 골 3:16.
  - 1.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공급하는 기능을 한다 — 시 119:2, 88.
  - 2.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은 생명과 빛이신 하나님 자신을, 율법을 사랑하는 이들 안으로 분배하는 기능을 한다 — 시 119:25, 50, 107, 116, 130, 154.
  - 3.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은 사람의 혼을 소생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능을 한다 — 시 19:7-8.
  - 4.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은 구원을 가져다주는 기능을 한다 — 시 119:41, 170.
  - 5.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시 119:28), 위로하며(76 절), 보양하는(103 절) 기능을 한다.
  - 6.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를 떠받치고, 안전하게 지켜 주며, 소망을 갖게 하는 기능을 한다 — 시 119:116-117, 49.
  - 7.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로 우리의 뜻이신 하나님을 누리게 한다 — 시 119:57.
  - 8.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로 하나님의 얼굴(시 119:58)과 그분의 얼굴의 빛 비춤(135 절)을 누리게 한다.
  - 9.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로 우리의 은신처와 방패(시 119:114)이신 하나님을 누리게 하며,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선대하심(175, 65 절)을 누리게 한다.
  - 10.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는 기능을 한다 — 시 119:98-99.
  - 11.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에게 합당한 분별력과 지식을 주는 기능을 한다 — 시 119:66.
  - 12.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고, 모든 악한 길에서 우리를 지켜 준다 — 시 119:11, 101.
  - 13.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인 율법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고(시 119:165), 우리의 발걸음을 안정되게 하며, 우리로 죄악을 이기게 해 준다(시 119:133).
  - 14.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를 그분의 신부가 되도록 순수하게 하고 아름답게 한다 — 시 12:6, 119:140, 앱 5:26-27, 사 60:7 하, 21, 시 27:4.
- D. 말씀이 우리의 체험에서 빛인지 아닌지는, 말씀 앞에 나올 때 우리의 태도와 상태에 달려 있다 — 요 5:39-40.
  - 1.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 확신을 갖지 않고, 주님을 앙망하며 긍휼을 구해야 한다 — 사 57:15, 66:2.
  - 2. 주님의 빛 비춤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내적 존재의 모든 방이 열려야 한다 — 잠 20:27.
- E. 우리는 빛을 만들어 내지 말아야 한다. 도리어 우리는 우리에게 빛 비추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 — 사 50:10-11.

## III. “기도에 꾸준히 힘쓰고” — 골 4:2-4.

- A. 누가복음 11 장 2 절부터 4 절까지에 나오는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기도한다면, 그 결과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넣는 기도를 할 것이다.
  - 1. 우리는 체험 가운데서 자주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머물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넣는 기도를 해야 한다.

2. 우리는 쉽게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기 때문에 매일 아침 그분과 시간을 보내며 우리 자신을 그분 안으로 넣는 기도를 해야 한다 — 시 5:3, 사 50:4.
  3. 우리의 기도하는 방식이 우리를 주님에게서 빗나가게 하고 우리를 주님 안으로 이끌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하는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넣는 기도를 할 것이다.
  4.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넣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우리의 공급을 위해 (떡과 생선과 달걀로 대표되는) 그분의 풍성을 우리 존재 안으로 받아들인다 — 뉘 11:5-13.
  5. 떡은 땅의 풍성을 대표하고, 생선은 바다의 풍성을 대표하며, 달걀은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는 것의 풍성을 대표한다. 성령은 이러한 풍성들의 총체이시다.
  6.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넣는 기도를 하여 그분 안에 머무를 때, 우리는 (떡과 생선과 달걀로 상징되는)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성령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자신이 먹고, 우리의 돌봄 아래 있는 모든 사람도 먹일 수 있다 — 마 24:45-46, 요일 5:16 상, 고후 3:6, 행 6:4.
  7. 우리는 기도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 구체적이고도 효과적인 방식으로 그분을 개인적이고 은밀하게 접촉해야 한다 — 뉘 11:13, 마 14:22-23, 6:6.
- B.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기도가 진정한 자아 부인임을 함축한다 — 막 8:34, 9:29, 골. 4:2, 갈 2:20, 빌 3:3, 4:6-7, 11-13.
- C. 기도하는 것은 사실상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것이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자신의 노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 갈 2:20, 롬 10:12-13.
- D. 우리는 가장 사소한 문제도 주님께 여쭈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에 꾸준히 힘씀으로써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 시 27:4, 비교 수 9:14, 빌 4:7-8.
- E. 우리는 기도를 위해 명확한 시간을 떼어 놓아야 한다. 우리는 기도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이며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 단 6:10, 행 12:5, 12.
- F.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땅과 거룩한 성과 거룩한 성전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권익을 향해 기도해야 한다 — 왕상 8:48.
1. 거룩한 땅은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에게 할당한 뜻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골 1:12, 2:6-7, 신 8:7), 거룩한 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징하며(시 48:1-2), 거룩한 성전은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상징한다(엡 2:21, 딤전 3:15).
  2.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들을 열고 하루에 세 번 기도하였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안의 목표인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집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임을 가리킨다 — 단 6:10.
  3. 이것은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든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익, 곧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권익인 그리스도와 교회를 겨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IV. 우리가 기도에 꾸준히 힘씀으로 그리스도의 화평의 다스림을 받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할 때, 그분은 우리의 타고난 모든 차이점들이 제거되고 우리가 실제로 새사람이 되기까지 우리에게 침투하시고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대치하신다 — 골 3:15-17, 4:2-3, 3:10-11.